

투데이 칼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농어촌버스 이용 경험이 거의 없고 버스 요금도 잘 모르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억이 없겠지만, 70~80년대 시골마을을 운행하는 버스는 작은 시골장터였다.

시장에 내다 팔 고추와 참깨를 비롯해서 보따리 한쪽에 묶어놓은 수탉이 끼고 울어대고 고동어, 갈치가 담긴 장보따리가 생선 비린내를 물씬 풍기며 시골정취 가득 싱고 신나게 달렸던 예전의 정겨운 버스가 있었다.

붓집을 가득 실은 어르신들과 검정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섞여 버스 안은 항상 왁자지껄 시골정취가 어우러진 장소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농촌지역 버스는 점점 활력을 잃고, 급기야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교통여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도시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대중교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해 주고 있다.

버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의 기반시설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걸 부인 할 수는 없다.



양 제 범 고창군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장

이러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고창군에서는 교통복지구현 차원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조차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오지마을 36개 마을에 천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이동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차량 6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학여건이 열악한 중고등학교(61명)를 위한 통학택시 운행, 주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터미널에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흐를 수 있게 문화터미

널을 조성했으며, 교통 혼잡지역 녹색집터 공영주차장 조성(2017년 4개소 318면 확보)했다.

여기에 2월 1일부터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른 1000원, 학생 500원으로 지역 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농어촌버스 이용객 대부분이 교통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어르신과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한해 10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에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농어촌버스 복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에서 버스요금 단일화에 관련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용역과 사업 타당성에 관련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해 말 버스회사 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상하면 섬포마을)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2월부터는 이 같은 구간 요금제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부담 없이 관내 병의원, 시장, 복지시설, 관광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소통, 공감의 장이 확대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도 개선되리라 본다.

지역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복지 시책추진에 고창군도 앞장서고 있다.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창군은 군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왔고,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또한 대중교통약자를 배려한 따뜻한 교통행정 중 하나의 결실인 것이다.

군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듬달로 청정한 명품도시, 귀농귀촌 1번지 도시의 명성을 이어 선진 교통복지도시로의 고창군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사설

청년층 불잡아들 대책 절실

청년층을 불잡아들 대책이 절실하다. 도내 젊은이의 40%가 이쪽 지역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게 또 다시 확인되었다. 기회가 주어지면 청년층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은 친구들을 도내의 미취업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일자리 늘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되겠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어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할 때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미취업률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먼저 술선수 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산보다 못한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나중에 그 실정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434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일반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이 관건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밀양 화재 참사, 남의 일이 아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경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한달만에 그보다 더 참혹한 사고를 당했으니 말이다. 38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것은 국가적 재앙 수준이 아닐 수 없다.본보는 제천 화재 사고 때 어떤 이가 보였던 반응을 인용해 1971년 연말에 발생한 대연각 화재 사고가 생각나다고 했거니와 밀양 세종 병원의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밀양 화재 참사가 지난 금요일 이후 계속 톱뉴스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교훈이 있다. 모든 화재 사고에는 분명히 교훈이 있지만 이번의 밀양의 화재 참사는 더욱 그렇다. 불난 시기와 장소만 다르달 뿐, 제천 화재 참사와 똑같은 판박이가 아닐 수 없다. 제천에 제천 화재 사고가 난 후 전북도 소방본부는 18개 주요 스포츠 센터와 8개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위기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모든 요인원인과 노인 환자 수용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전북도는 밀양 화재 참사를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가 아니라며 속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예기치 않은 때 위함에 노출될 뿐이다. 지금까지 별 사고가 없이 관철왔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도 금물이다. 밀양 화재 참사가 사고가 주는 교훈은 크다. 화재를 당한 잿더미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수습되는 것을 본다면 불조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속하진 도시사가 도내 여러 요양병원과 응급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데 그것은 당연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와 소방 본부는 다들 안전 메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한다. 최근들어 국내에는 제천화재 참사와 밀양 화재 참사 말고라도 인명피해를 낸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쩔 수 없이 안전하고 조짐이 안좋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은 항상 불 단속을 잘 해왔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화재 예방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생각으로는 화재 예방이 안 되는 때가 많다. 밀양의 화재 참사는 정녕로 남의 일이 아니다.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은 사랑 아닌 범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부부사이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해 왔지만 '데이트 폭력'은 남녀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피해가 발생하면 이후에야 사법처리하는 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단순 폭력 범죄로 분류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데이트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폭력범죄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일명 '클리어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자신 혹은 주변에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피해사실을 알려 단 둘이 만나 는 상황을 피해서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망설이지 말고 긴급신고 112, 가까운 경찰관서,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폭력자를 찾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서 신고하면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으로 인계되어 책임 있는 전담수사가 진행되고, 상담여경을 배치해 피해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유교를 중시하며, 남성적인 우월함을 강조하는 사회는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폭력으로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비이성적인 행위들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교통사고 유발자 '블랙아이스' 주의

최근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면서 교통사고 유발자인 '블랙아이스'가 도로 곳곳에 있다. 블랙아이스(Black Ice)는 눈이나 아는 비(freezing rain)에 의해 부명한 얼음이 아스팔트 위를 마치 코팅한 것처럼 뒤덮어 도로에 얼음이 없는 건조한 태(점점색)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존재로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차가 미끄러지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블랙아이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블랙아이스 위를 주행할 때에는 가장 먼저 평소보다 20%~50%감속하여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간격을 두고 주행해야 2차 사고예방을 할 수가 있다. 블랙아이스는 특히 주변에 갇혀 있는 다리 위나 그림자가 진 곳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같은 장소를 지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차량관리 또한 중요하다. 계절에 맞는 관리로 겨울철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스노체인이나 스노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하고, 타이어 마모 정도나 엔진을 체크한다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으로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구보민 진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Below the illustration, there is a call to action: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